



| | | | | | |
|---|---------------------|---------------|-----------------------|--|--|
|  문화체육관광부 | | 보도설명자료 |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 |
| 보도일시 |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총 2쪽(붙임 없음) | |
| 배포일시 | 2021. 7. 14.(수) | 담당부서 | 체육국 스포츠산업과 | | |
| 담당과장 | 조상준(044-203-3151) | 담당자 | 사무관 박효진(044-203-3156) | | |

체육 소비할인권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조선일보는 2021년 7월 14일(수) 자 <180억 중 160만 원 썼는데...‘체육할인쿠폰’ 예산 또 늘린 문체부>라는 제목으로 “문체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실내체육시설 할인쿠폰 사업’ 예산을 124억 원 증액했지만, 정작 이 사업의 올해 본예산 180억 원 중 160만 원(0.0009%)만 집행된 것이 확인되면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문체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반복적인 집합금지,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실내체육시설업체 지원과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료 경감을 위해 민간 실내체육시설에서 월 8만 원 이용 시(누적) 3만 원을 환급해 주는 ‘민간 실내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이하 체육 소비할인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육 소비할인권’은 지난해 3차 추경으로 122억 원(약 40만 명분)이 최초 편성된 이래, 약 3주간의 소비할인권 이용신청 기간(‘20. 11. 2.~11. 22.) 동안 국민 약 67만 명이 신청하는 등 국민 수요가 충분*한 사업입니다. 이에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이용 수요 충족을 위해 ‘21년 본예산 180억 원(60만 명분)과 ‘21년 2차 추경으로 124억 원(약 40만 명분)을 정부안으로 추가 편성했습니다.

* ‘20년의 경우 사업 시작 후 코로나 상황으로 사업이 중단되기 전까지(‘20. 11. 2.~11. 22.) 단기간(약 3주)에 예산의 78.3%(95.6억 원) 집행

현재는 엄중한 방역상황으로 ‘체육 소비할인권’ 이용신청과 환급을 진행하지 않아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방역상황이 안정되어 사업 재개 시, 체육시설업체와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방역을 충분히 고려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련 사항 보도 시, 언제든지 문체부의 입장을 문의해 주시면 성실하고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
|---|--|
|  <small>광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small> |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사무관 박효진(☎ 044-203-3156)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